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양 소 영*

7차 교육과정 고시(1997.12.3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2007.02.28), 2009년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2009.9.) 발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고시(2009.12.23)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었다. 이 시기는 처음으로 음악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여러 교과서간의 비교 분석과 개선 사항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여러 분석 관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네 가지 범주 즉, 구성 체제, 학습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내용의 오류로 교과서를 분석하고 어떠한 교과서가 수업의 교재로 도움이 되는지 어떠한 내용이 학생의 이해를 돕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앞으로 새로이 등장하게 될 교과서를 위한 방향 제시이자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이 될 것이다.

※ 주제어 :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 교과서, 초등학교

차 례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 연구 고찰
 - 2. 2007 개정 음악 교과서 편찬 방향 및 구성 체제
- III. 연구 방법
 - 1. 음악 교과서 평가 기준
 - 2. 교과용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분석 관점
- IV. 출판사별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교과서 분석
 - 1. 구성 체제
 - 2. 학습 내용
 - 3.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 4. 내용상 오류
- V. 맺음말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교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차 교육과정 고시(1997.12.3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2007.02.28), 2009년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2009.9.) 발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고시(2009.12.23)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었다. 이는 국가·사회적 변화 및 학문의 발달 등의 배경과 제7차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및 교과 교육 내용의 개선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음악 주제와 화제를 그때마다 민첩하게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청각교재를 완비하는 등의 이상적인 요청에 음악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조순이, 2004, p.228). 또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하는 교과서 체제로 인해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은 교과서의 잦은 편찬으로 이어져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용하기 위한 수업 현장은 그야말로 정신없는 몸살을 앓는다. 교과서 현장 적합성 연구와 지역청별 강사 연수, 학교별 교사 연수와 교사의 수업 개선 연구 등 수십 차례 적용 교육과 연수가 현장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많은 연구, 연수 중에서 교과서를 제작하는 일과 완성본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는 일은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손색이 없는 교과서가 막상 현장 활용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외·내부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장에 매끄럽게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의도한 대로 현장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에게 내용 수준이 적절한지 학년 간 연계는 어떠한지 학생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교사는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교과서가 현장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는 음악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 교과서로 전환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교과서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사항, 즉 어떠한 교과서가 수업의 교재로 도움이 되는지 어떠한 내용이 학생의 이해를 돕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분석 관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네 가지 범주 즉, 구성 체제, 학습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내용의 오류로 교과서를 분석하여 앞으로 새로 등장하게 될 교과서를 위한 방향 제시이자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 1) 중학교와 연계된 초등학교의 마지막 중요한 시기이면서 한 학년을 집중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한다.
- 2) 검정 심의를 통과한 5개 출판사 중 5·6학년이 모두 합격되어 비교적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3개 출판사의 교과서를 분석한다.
- 3) 평가 기준상에 교육과정 준수나 외형적 체제는 중요한 기준에 해당되나 검정 심의를 통과하고 현장 수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생략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고찰

여기서는 교과서 분석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김명숙(2008)은 한국과 독일 교과서를 비교하는 방식을 내용적 관점, 지도 방법적 관점, 생활화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내용적 관점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중심 활동의 학습 내용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지도 방법적 관점에서는 단위 구성형태, 음향 및 탐구 연마자료로 나누어 분석하고 생활화 관점은 생활화와 음악생활로 나누었다. 민경훈(2008)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교과서 개선을 위한 현행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문제점 분석에서 독일의 음악 교과서 Hofstetter의 음악교과서 분석방법을 기준으로 음악교과서를 분석하였고, 변계원(2009)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부분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해, 생활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류미혜(2010)는 2010 전시본 초등 5, 6학년 음악교과서에 있는 가창 제재곡을 분석하였다. 또 현행 음악 교과서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 고찰해 보고 현장에서 교과서 활용 방안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김미숙(2011)은 음악교과서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면서 구성체제와 내용의 선정 및 조직으로 분류하여 구성 체제는 개념적 접근법, 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능동적 참여와 다문화적 접근

법에 의한 새로운 제재곡 발굴을 제안하였다. 한윤이(2012)는 국악 어법에 맞는 국악 교수법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3~6학년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에 제시된 국악 교수법을 분석하여 국악 교수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경옥 외(2014)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교과서를 분석하는데 있어 감상 활동을 중심으로 국악과 양악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과서 분석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성, 외국 교육과정과 우리 교과서를 비교하는 연구는 다수 다루어져 왔으나 정작 국정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교과서간의 분석과 개선 사항 분석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 2007 개정 음악 교과서 편찬 방향 및 구성 체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서의 편찬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실용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음악적 발달로 볼 때 이 시기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음악의 다양한 특징을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 가락, 박자 등의 개념이 확립되어 개념 중심의 학습이 가능해진다.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감수성이 풍부해지도록 하고 합창 및 합주 활동과 같은 집단 음악 활동을 통하여 또래 집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음악적 표현 활동과 지식을 바탕으로 음악성, 창의성, 미적 감수성, 생활에서의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적합하도록 하고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과서는 내용의 적정화를 통해 필요한 개념이나 활동 내용만을 선정하여 위계화 함으로써 학년별로 지도해야 할 내용도 분명해지고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꾀해야 한다(2013, 지도서 참조).

또한 창의적인 구성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교과서의 구성 체제로 각 단원의 학습 분량을 적정하게 나누고 단원의 구성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주제, 개념, 영역, 악곡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며 내용과 수준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위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또 학생의 흥미와 관심, 발달 단계, 개인차 등을 고려하여 단원을 구성하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며 충분한 설명과 다양한 학습 자료, 학습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도록 강조한다.

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여러 학자가 제시한 교과서 평가 기준과 교육부 교과용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분석 관점을 살펴보고 해당 분석 기준을 정리하여 교과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교육부 현장 적합성 검토 기준은 새로운 교과서가 현장에 제공되기 전 일선 연구학교에서 실험본 교과서가 현장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분석 관점이다. 따라서 학자와 교육부간의 평가 기준을 검토해보고 다루고 있는 부분의 일치 정도를 찾아보는 일은 의미 있다는 판단 하에 공통으로 다루어진 분석 기준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악 교과서 평가기준

교과서 평가 기준 가운데 “머셀과 글렌(Mursell&Glenn, 1987)은 교재의 내용, 전체적인 조직, 다른 교과와의 관련, 교육적 지시, 체제 및 참고 사항으로 나누고 이흥수(1991)는 구성 체제, 교재곡의 내용, 학습내용의 조직, 자기 주도적 창작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방법, 표현 및 표기, 편집 및 외형체제, 독창성(김미숙, 2011, 재인용. p.115)이라고 한다. 또 독일의 음악교육학자 R.Hofstetter(민경훈, 2008, p.149에서 재인용)는 학습목표 제시, 내용의 선정 및 구성, 학습자의 지식 및 사고, 학습자의 참여, 편집 디자인으로 독일 음악교과서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평가 기준 목록

개인 / 단체	평가 기준
머셀과 글렌 (Mursell&Glenn, 1987)	교재의 내용
	전체적인 조직
	다른 교과와의 관련
	교육적 지시
	체제 및 참고 사항
이흥수(1991)	구성 체제
	교재곡의 내용
	학습내용의 조직
	자기 주도적 창작 활동

개인 / 단체	평가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방법
	표현 및 표기
	편집 및 외형제제
	독창성
소프스테터 (R.Hofstetter)	학습목표 제시
	내용의 선정 및 구성
	학습자의 지식 및 사고
	학습자의 참여
	편집 디자인

2. 교과용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분석 관점

다음의 검토 기준은 2013년도 교육부 교과용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에 사용된 교과서 분석 관점이다. 이는 새로운 교과서가 현장에 제공되기 전 일선 연구학교에서 실험본 교과서를 분석해서 현장의 적용 정도를 교과부에 보고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표 2> 교과용 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기준(교육부, 2013) 참조

실험·연구 내용		
공통 사항	적합성	1.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2. 학생의 발달, 요구, 흥미, 능력 3. 내용의 양, 지도시간 4. 내용의 수준, 난이도 5. 교재, 교구 자료준비
	정확성	1. 삽화, 사진, 도표, 통계 등 2. 표기, 표현, 용어 등 3. 지식 체계 4. 편견, 특수성 5. 오류, 오자, 탈자 등
	연계성	1. 계열성(학년간, 교과 내) 2. 횡적 관련성(교과 간) 3. 내용의 배열, 조직
	참신성	1. 소재 선정, 자료 제시 2. 시대성, 현실성, 창의성 3. 편집, 체제, 아이디어
	기 타	1. 지역성, 역할, 종교 단체 2. 첨가해야 할 내용 3. 삭제해야 할 내용

살펴 본 음악 교과서 평가 기준과 현장 적합성 검토 기준을 통해 음악 교과서 분석 관점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 본 2007 개정 음악 교과서 편찬 방향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범주(구성 체제, 학습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내용상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 내용상 오류는 화음 상 맞지 않는다든가 제시된 리듬 형태가 잘 못 표시되어 있는 등의 단순 오류만을 나타낸다.

<표 3> 각 평가 기준 종합 정리

머셀과 글렌	이홍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프스테터	현장적합성 기준	구 분
전 체 조 직 / 체 제 및 참 고 사 항 / 다른 교과와의 관련	구 성 체 제 / 학습 내용 조직	.	내용의 구성	적합성	구성 체제
교재 내용	교 재 곡 의 내용	내용의 선정	내용의 선정	정확성, 연계성	학습내용
교육적 지시	자기주도적 창작 활동	내용의 조직 /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의 지식 및 사고 / 학습자의 참여	적합성, 참신성	교수·학습 방법
.	.	.	.	기 타	내용상 오류

IV.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교과서 분석

지금까지 교과서 분석이 그 안의 틀을 분석하고(조은진:1996, 차경미: 2005) 교육과정에 따른 비교 분석(한경숙:2002, 류미해:2012)이 대부분이었다면 검정 교과서 각각의 세부 내용과 그 체제가 어떻게 학교 현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다. 앞서 정리한 구성 체제, 학습내용, 교수·학습 방법, 내용상 오류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현장 활용면’의 사용에 있어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1. 구성 체계

음악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배열되느냐에 따라 제시 형태가 결정된다. 우리나라 음악교과서의 구성 체계는 악곡 그 자체가 제재명이 되는 악곡에 의한 제재곡 배열식과 주제에 따른 단원식 구성이 혼합되어 있다. 제재곡 배열식은 교재 악곡 자체의 학습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반면 주제에 따른 단원식 구성은 다른 음악적 목표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제재곡을 다루는 것이 기본 구성의 차이다(김명숙, 2008, p.57 참조). A, B, C출판사의 교과서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4> A출판사 교과서 구성

단원명	제재명	단원명	제재명
1. 나가자!달리자!	우주 자전거	4. 지화자 좋다	예농대농
	봄바람		장장 짚세기
	작은 별		동창이
	독주곡의 세계		금다래꿈
	산새가 아침을		풍년가
	과랑새의 봄		소금 연주
	쓰임새에 어울리는 음악 찾아보기		살아있는 우리음악
(중략)		(중략)	

A출판사는 대단원 6개와 그에 따른 제재곡을 제시하고 있다. B출판사의 교과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B출판사 교과서 구성

대단원	소단원	제재명	대단원	소단원	제재명
1 음악과 생활	우리서로 친구들	둥글둥글 친구야	2 음악의 이해	화음실현실	아름다운 것들
		난 네가 좋아		돌고도는 음악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샤르팡티에의 '프렐류드'
	놀이와 함께하는 음악	강강술래		우리나라의 민요	등당기타령
		자진강강술래			금다래꿈
		남생아 놀아라		새로운 소리의 음악	전래동요에 의한 민요
					침묵의 음악 소음의 음악
(중략)			(중략)		
음악컴퓨터		던져라 음악 주사위	음악컴퓨터		음악날말 찾기

대단원 4개와 소단원 5~6개, 소단원 하위 단계로 제재곡이 나타나 있다. 한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음악 컴퓨터를 넣었다. A출판사가 큰 주제 중심 단원인 반면 B출판사는 이해, 표현 활동 중심의 단원으로 묶여 있다.

<표 6> C출판사 교과서 구성

1학기 제재명	2학기 제재명
새 나라 새 주인	봉족타령/ 싸름
봄 오는 소리	놀람 교향곡
숲 속의 이야기/ 산조	친구야/ 별 가족
봄	들국화
(중략)	(중략)

C출판사는 예전 국정교과서와 같은 형태인 제재곡 배열식으로 되어 있다. 끝부분에 즐거운 노래와 합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A, B, C출판사(이하 A, B, C) 모두 구성에 차이를 보인다.

<표 7> 출판사별 구성 체계

출판사 구성 체계	A	B	C
구성 체계	주제 배열 단원	활동(생활화, 이해, 감상, 표현)단원	제재곡 배열
구성 형태	대단원(6)+악곡	대단원(4)+소단원(5~6)+악곡	악곡 배열

(숫자) 단원 수

▶ 현장 활용면 : 현장 활용에 있어 어떤 형태든 수업의 활용에 큰 차이는 없다. A, B의 단원식 구성은 겉으로 보아 기존과 달라진 듯 보이나 형식적인 단원 구성일 뿐 내용에 있어 달라진 점이 없다. A의 경우 6단원으로 나누었지만 국악 부분이 4단원 ‘지화자 좋다’에 모두 포함된 것도 아니고 단원 주제와 제재곡간에 연관성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나누어진 단원이 전체 수업에 있어 그 효율성을 찾기 어렵다. B는 활동(생활화, 이해, 감상, 표현) 중심으로 대단원과 소단원을 나누고 여러 제재를 묶어 제시하고 있으나 수준면에서 쉽지 않다. 그러나 음악과 생활, 음악의 이해 등 활동 중심 단원 아래 소단원을 제시하고 양악, 국악을 구분하지 않고 활동 단원 안에 연결한 방식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여겨진다. <음악과 생활>은 단원 맨 앞에 제시되어 음악의 생활화 부분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여겨지나 음악 외적인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과 생활화를 한 단원으로 묶어 전달하는 것이 수업 활용에 더 효과적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음악 발표하기>는 합주와 창작, 생활화가 함께 제시되어 기악 수업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는 제재곡 위주의 배열로 기존 교과서와 같은 형태를 취하나 제재곡만을 익히는데 주력한다는 단점이 있어 요즘은 선호하지 않고 있다.

2. 학습 내용

1) 영역별 내용 빈도

영역별 내용 빈도는 지문과 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각 교과서별로 영역이 적절히 나누어졌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교과서 대부분이 각 영역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노래 부르기과 이해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고 악기연주,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생활화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출판사별로 A, C 경우 영역별 분포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해 B는 비교적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어 전체 내용이 고르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영역별 내용 빈도

출판사\영역	노래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음악만들기	감상하기	이해	생활화
A	30(39%)	8(10.5%)	7(9%)	7(9%)	20(26%)	5(6.5%)
B	15(25.9%)	9(15.5%)	8(13.8%)	5(8.6%)	14(24.2%)	7(12%)
C	44(30.1%)	10(13.7%)	6(8.2%)	8(11%)	22(30.2%)	5(6.8%)

▶현장 활용면 : A, B, C 모두 노래 부르기과 이해 영역의 비중이 높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6학년이라는 고학년 특성과 노래 부르기 영역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비교적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2) 영역별 내용 구성

먼저 각 활동 영역에서 노래 부르기과 악기 연주하기는 순수한 표현 활동을 위한 영역과 음악요소 및 원리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활동 영역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각 내용의 구분보다는 노래 부르기과 악기 기능 자

체를 학습하는 상황과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다만 음악 만들기와 감상하기는 활동 자체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연결 지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하나의 분석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9> 출판사별 노래 부르기 내용 분석

출판사	영역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를 통한 음악 개념 형성
A 출판사		보고부르기로 부르기/가사 읽고 의미 생각하며 부르기(16.7%)	리듬꼴 익혀 부르기/셈여림 살려 부르기/형식 알고 부르기 등(83.3%)
B 출판사		보고부르기로 부르기(3.7%)	핸드벨 화음반주하며 노래 부르기/리듬반주 넣어 부르기/임시표에 주의하며 노래 부르기 등(96.3%)
C 출판사		보고부르기로 부르기/가사 뜻 생각하며 부르기/가사 내용과 흐름 생각하며 부르기 등(50%)	리듬꼴 주의하여 노래 부르기/화음의 어울림 느끼며 노래 부르기/당김음 살려 부르기 등(50%)

A, B 모두 노래 부르기 비중은 높으나 순수한 노래 부르기 활동과 노래 부르기를 통한 음악 개념 형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순수 노래 부르기 활동이 다소 적은 분포를 차지한다. 특히 B의 경우 노래 부르기 자체 활동보다 개념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면이 전체 96.3%를 차지하고 있다. 제재곡 배열식의 C는 내용상 노래 부르기 활동과 음악 개념 형성을 위한 활동의 비중이 절반으로 거의 균등하게 제시되어 있다.

▶현장 활용면 : 물론 노래 부르기 활동은 다양한 활동과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전 제재곡 배열식이 가창 위주 수업 방식으로 지적되어 오면서 요즘은 단원식 구성으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 수업 내용과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순수하게 가사를 읽고 그 뜻을 파악하거나 가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여 노래 부르는 활동(A-12쪽/B-22쪽/C-18쪽)이 점차 줄어들어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한 쪽으로 치우친 면을 볼 수 있다.

출판사별 악기 연주하기 영역도 순수한 악기 연주와 개념 형성을 위한 악기 연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표 10> 출판사별 악기 연주하기 내용 분석

출판사	영역	악기 연주하기	악기 연주하기를 통한 음악 개념 형성
A		리코더 2중주하기/리코더 합주하기/기악합주하기(55.6%)	화음에 어울리는 가락 만들어 연주하기/리듬반주하기(44.4%)
B		리코더 연주하기/외워서 2중주하기/기악합주하기(31.2%)	리듬반주넣기/화음반주하기(68.8%)
C		리코더 주법 익혀 연주하기/어울림 느끼며 기악합주하기(71.4%)	멜로디언으로 연주하고 화음의 아름다움 느끼기/리듬반주 만들어 치기(28.6%)

A는 두 활동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B, C는 한 쪽으로 조금씩 치우쳐진 상태다. 하지만 A나 C가 기악합주에 대부분의 악기 연주 수업을 할애하는 대신 B는 27쪽 화음 위에 가락 연주하기, 29쪽 론도 만들어 연주하기 등 다양한 활동에 악기 연주를 활용하고 있다.

▶현장 활용면 : B는 노래 부르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념중심의 활동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C는 제재곡 배열식이라 곡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 구성이 많았다. 그러나 악기 소리를 직접 들어가며 경험해야 효과적인 ‘화음’ 전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각 출판사별로 악기 배치나 운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병행하고 대부분 기악 활동이 고르게 제시되어 있다.

출판사별 음악 만들기 영역을 분석하였다. 음악 만들기는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묶어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응용과정으로 어린이의 직접적인 경험 제공 활동이다. 따라서 하나의 분석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11> 출판사별 음악 만들기 내용 분석

출판사	영역	음악 만들기
A		화음에 어울리는 가락 만들기/가사 바꾸어 노래 부르기/못갖춘마디 한도막 형식 만들기/박자에 맞는 리듬·가락 짓기
B		간단한 형식의 노래 만들기/어울리는 가락, 가사 채우기/랩 만들기/리듬, 가락 론도 만들기/정해진 리듬으로 가락 만들기
C		계속되는 느낌, 끝나는 느낌으로 가락 짓기/한도막형식 앞부분에 이어 뒷부분 가락 짓기/음악극 만들기/제재곡의 뒷부분 즉흥적으로 바꾸어 부르기/변주곡 만들기/가사에 맞는 가락 짓기

A는 가사 바꾸어 부르기, 박자에 맞는 리듬, 가락 짓기 등의 비교적 기존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B는 랩, 타악기 연주 등 종전 내용과는 보기 드문 시도가 있었다. C는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 제제곡과 변주곡 뒷부분 바꾸기, 가사에 어울리는 한 도막 형식 가락 짓기가 있다.

▶현장 활용면 : A, C 모두 단선율의 가락 짓기를 제시한 반면 B는 화음을 이용한 가락 짓기가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가락 짓기가 리듬과 계이름을 중시하는 만들기가 대부분이고 정작 중요한 화음감을 익히는 경우가 빠져있는데, B의 화음을 이용한 가락 짓기는 좋은 예이다. 66~67쪽 ‘제멋대로 가는 시계’는 수업 흐름에서 있어 67쪽 만드는 과정이 먼저 제시되고 66쪽의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C에서 17쪽 ‘풀잎, 나뭇잎~ 소리 내는 악기를 만들어 봅시다’는 소리 탐색 과정으로 저학년에 제시되는 것이 알맞고 57쪽 가사에 맞는 한 도막 형식의 노래 만들기는 가사밖에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출판사별 감상하기 영역의 분석이다. 감상 악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음악이 어떠한 방법으로 악곡의 특징적 요소를 파악하도록 이끌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필요에 의해 감상곡이 국악곡일 경우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2> 출판사별 감상하기 내용 분석

출판사 \ 영역	감상하기
A	독주곡(감상), 실내악(감상),극음악(특징 비교), 의식·궁중에 사용하는 음악(감상)
B	론도형식(감상 및 리듬 문답), 새로운 소리의 음악(상상하기, 음악 만들기), 악기들이 모였다(악기의 종류 및 음색), 음악이 표현하는 그것(감상, 음악적 특징), 의식·궁중음악(연주 이유, 간단한 형식의 노래 만들기), 극음악(비교 감상)
C	표제음악(감상 느낌과 특징), 극음악(같은 점 다른 점 이야기하기, 감상 일기), 변주곡(주제 변화, 주제 만들기), 의식·궁중음악(음악의 특징과 느낌 비교), 악기 종류 및 음색

감상하기는 출판사별로 제시하는 음악 종류나 곡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A, C가 간결하게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것을 제시한 반면 B는 음악의 형식도 다양하고 음악의 종류도 현대음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장 활용면 : A의 <하나 더> 코너는 어려운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어 심화부분으로 제시된 듯 하나 실질적인 쓰임새를 찾지 못했다. ‘악곡의 떠오르는 느낌

을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기’는 저학년 활동에 더 알맞고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악곡의 특징적인 요소 파악’이 잠깐 나타나 있기는 하나 학습 내용보다는 설명 위주의 글이 대부분이다.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하나 더> <심화> <더 알아보기> 등은 수업에 굳이 없어도 될 요소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학습 분량이 넘치게 되고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는 A에 비해 감상 활동 내용이 다채롭다. 그러나 수업 흐름의 배열 상 28쪽 3번 짧은 형식의 샤르팡티에 ‘프렐류드’가 먼저 제시되고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의 긴 론도가 연결되는 것이 수업 연계에 알맞고, 또 반복 주제 제시가 주요 활동인 론도 수업에 2번의 화음 연주는 맞지 않는다. 42쪽에 있는 ‘악기들이 모였다’는 수업 내용이 43쪽 상자 안의 내용은 악기 모두를 나타내기 보다는 몇 개의 악기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 적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수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46~47쪽은 표제음악을 절대음악과 비교하는데 있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표제음악보다는 절대음악이 내용이나 삽화에서 강조되어 있다. 악곡도 한정된 시간에 모차르트 협주곡, 비발디의 ‘사계’, 김기영의 ‘비단줄’ 등 많이 제시되어 있어 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C는 32쪽 음악극은 그 동안 3, 4학년에서 있어 온 역할극과 많은 이야기 상황극 만들기 경험을 토대로 6학년에서는 극음악을 경험하고 비교하여 토론한다든가 활동 하나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진행되어야 한다. 58쪽 악기 종류에서 악기 특성 탐색은 저학년에 알맞고 이보다는 구체적으로 음악을 들으며 음색을 찾아가는 활동이 이 시기 학생 수준에 더 효과적이다.

3.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각 출판사별로 전체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그 안에 제시된 평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표현, 이해,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제시된 평가 부분을 살펴본다.

<표 13> 표현·이해 영역 교수·학습 방법 분석

영역 출판사	표현	이해
A	A의 12~13쪽 ‘화음’수업을 위해 짧은 2곡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은 이해에 도움이 됨	66~67쪽 실질적으로 대선율을 위해서는 리코더나 멜로디언 등 가락악기로 자주 들어야 노래 부르기 쉬움.

영역 출판사	표현	이해
	• 34~35쪽-4성부 합창, 리듬 반주 하기, 화음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박자 바꾸어 부르기, 대 선을 넣어 부르기 등 내용 과다	어려운 반음 노래 부르는 아이들이 바로 따라하지 못 함
	• 전체 대략 11~12곡의 양악곡 중 부분2부합창이 8~9곡으로 거의 모든 가창에서 2성부 합창을 해야 함	
	• 36쪽 잠보 악보 가운데 ‘방문을~’ 부분 못갖춘마디로 수정	
	• 71쪽 갓춘마디 가락 짓기도 힘든 데 못갖춘마디 가락 짓기는 현실 적으로 어려움	
B	• 20~21쪽 색깔별 리듬은 선뜻 구 분이 힘들. 고학년인 만큼 몸 움 직임을 바꾸기보다는 리듬합주 후 리듬 창작이 더 알맞음	• 26~27쪽 계이름에 따라 실 험기구 물높이가 모두 같아 삽화 그림 수정요. ③번 화음 반주 후 ②번이 와야 계열성 맞음
	• 22쪽 신체표현 그림 필요 없음 • 27쪽 소리의 울림을 들어야 하는 화 음 수업에 가락과 함께 움직이는 핸드벨 악기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 55쪽 ③번 연주가의 연습 시간을 추 측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적어보는 활동이 현 수준에 알맞음	
	• 57, 58쪽이 박과 리듬수업으로 연 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계성이 없음	
	• 64~65쪽 리코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가락을 한번도 연주하지 않고 반주 역할만 하고 있어 조화롭지 않음	
	• 66~67쪽 두 쪽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수업 연계를 위해 자연스러움	
C	• 11쪽 두 가락이 순차, 도약을 나타 내든 가사의 내용상 연결을 나타 내든 어려움이 따름	• 17쪽 6/8박자 제재곡에 굳이 2/4박자 가락 완성은 알맞지 않음. 2박의 연관성은 있더라 도 단위박의 차이로 다시 설 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17,27,37,43,57쪽 13곡의 제재곡 중 5개의 가락 만들기가 들어있음.	

A는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전반적으로 노래 부르기 활동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분포를 차지했고 따라서 합창 활동이 각 제재곡마다 제시되었으며 B는 영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방법면에서도 새롭게 시도하는 내용이 많았으나 수업과의 연관성과 난이도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띄었다. C는 영역 중 유난히 가락 짓기가 많이 나타나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수준과 양을 검토해야 한다.

▶현장 활용면 : A는 34~35쪽 2차시 학습에 4성부 합창, 리듬 반주하기, 화음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박자 바꾸어 부르기, 대선을 넣어 부르기 등 내용 적절성 측면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 하나가 ‘화음(화성)’으로 ‘3성부, 리듬·화음 반주’나 ‘3성부, 대선을 넣어 부르기’로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 양악곡 11~12곡 중 8~9곡이 부분 2부 합창으로 거의 모든 가창에서 2성부 합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B는 20~21쪽 색깔별 리듬은 구별하기 어렵고 고학년인 만큼 ③ 몸 움직임을 바꾸는 활동보다는 리듬 합주 후 리듬 창작이 더 알맞다. C는 전체적으로 노래 부르기, 성부의 어울림, 가락 만들기 등 지문 내용 요소의 중복이 많고 이에 따른 활동 요소도 다양하지 못하다. 가창 영역이 많고 가락 만들기도 여러 번 반복되며 교과서 내용에서 창의적인 특징을 찾아보기 힘들다.

<표 14> 생활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분석

영역 출판사	생활화	평가
A	32쪽 만들고 싶은 음악회의 모습 그리기는 고학년에 맞지 않음	가락 만들기, 화음 쓰기 등의 평가 요소가 있음
B	16~17쪽 내용에 비해 설명이 많음. 직접 아이들에게 하루 동안 들은 음악을 적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18쪽 낯선 해금연주곡을 듣고 시, 사진, 그림, 이야기 찾아 발표하는 것은 어려움. 삽화도 행복을 느끼기 힘들 56쪽 시대별 동요 흐름의 차이를 느낄 수 없고, 가족이 즐겨 부르는 동요 조사 또한 수업 흐름상 그다지 도움 되지 않는 활동임	<음악쉼터>라는 코너가 있어 수업과는 무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감
C	65쪽 실제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행사 계획을 수업에서 계획하기는 어려움	가락 만들기, 47쪽 노래나 악기 연주 후 친구 평가가 있음

A의 14쪽 <꼭 적은 100점 자료>는 학생 스스로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B와 C는 특별히 평가 항목을 따로 가지지 않고 수업 안에서 가락을 만든다든지 노래나 악기 연주 후 동료 평가 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현장 활용면(표현, 이해, 생활화 및 평가) : A의 14쪽 <꼭 적은 100점 자료>와 68쪽 배운 악기를 스티커로 붙이며 분류하는 활동은 자기 주도 학습과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평가 항목이 된다. 또 B의 활동 중심 단원은 활동을 묶어 집중 공부할 수 있어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측면 모두 효율성이 높은 수업이 될 수 있다. C는 27, 37, 39, 47쪽 어려운 가락을 악기로 먼저 연주해보는 활동은 현장에서 어려운 가락을 익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활화에서 A는 단원 마지막에 ‘생활이랑 음악이랑’ 코너를 넣었고 B는 처음 시작 부분에 ‘음악과 생활’이라는 단원으로 한 단원을 생활화 영역으로 제시했으며 C는 제재별 내용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제시하였다. ‘음악회 참여’라면 내가 바라는 음악회를 상상해 보고 그것을 계획해 보는 과정과 연습하고 초대장이나 안내장을 작성해보는 활동과 마지막으로 음악회를 여는 과정까지가 차시를 고려하여 나타나는 것이 맞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세 교과서 모두 특별한 제시 내용이 없어 아쉽다. 작가는 해당 차시 수업을 정리 하는 내용, 크게는 단원을 정리 하는 내용의 평가 마무리 코너가 제시되면 학생 입장에서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교사는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어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고학년인 만큼 오선지나 정간보를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4. 내용상 오류

이 부분은 많지 않은 내용이고 단순 오류이지만 교과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초등과 같이 많은 교과를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내용상 오류는 자칫 쉽게 넘어가 학생에게 오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

<표 15> 출판사별 내용 오류 사항

출판사	영역	영역별
A		34쪽 바누와에서 ④번 가락 두 번째 마디는 화음에 맞으려면 ‘도도도 도도도 도도라솔’이 아닌 ‘도도도 도도도 도도시도’가 알맞고 자연스러운 (화음 오류)

출판사	영역	영역별
		35쪽 ‘하나 더’ 코너에 제시된 악보 중 ‘아라누레니아라누’ 위 성부의 리듬이 음원과 다름(♩ ♩ ♩ ♩ ♩ ♩ ♩ ♩ → ♩ ♩ ♩ ♩ ♩ ♩ ♩). 교과서 제시 리듬보다는 음원 리듬이 부르기 편함(리듬 오류)
	B	46~47쪽 절대음악과 표제음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슬릭, 헤강은 이해하기 어려움. 47쪽 절대, 표제음악이 46쪽에 오고 그 예로 말 주머니를 사용해야 함(내용 제시 오류) 58쪽 ‘반달’ 빨간색 음표 모양의 음가가 다른 리듬을 같은 리듬 모양에 표기하여 오 개념을 심어줄 수 있음. ‘우주자전거’ 음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별에 음가가 다른 두 개의 음표가 제시되어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움(리듬 제시 오류)
	C	17쪽 ♩와 ♩가 들어있는 6/8박자의 리듬을 바르게 표현해 봅시다.’는 ‘♩ ♩가 들어 있는-’이나 ‘♩ ♩가 들어 있는-’ 리듬으로 수정. 6/8박자 한 단위로 제시되어야 함(음표 단위 표기 오류) - C는 아이콘으로 활동을 명시하는 방법은 좋으나 아이콘을 내용에 맞춰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 예를 들어 ‘4박자의 박자치기에 맞추어 리듬을 쳐 봅시다(8쪽)’의 리듬을 친다는 뜻은 음악 요소 중 ‘리듬’ 수업을 위함임. ‘이해’ 아이콘이어야 함(아이콘 수정)

화음 오류, 리듬 제시 오류, 내용 오류 등 작은 부분이지만 학생들의 오 개념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V. 맺음말

꾸준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과서가 매년 새롭게 바뀌는 음악의 관심사와 내용을 발 빠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동시에 수요자의 요구, 사회의 요구, 음악적 지식 체계 삼박자를 점검하는 일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사는 교과서를 통해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길러지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교사가 기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기를 원한다. 수학에 있어 분수를 가르쳐 실생활에서 ‘배분’을 활용할 수 있고 국어에서 ‘주장하는 글’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음악과가 정확하게 무엇을 기를 수 있다고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가 교사에게 좀 더 명확한 교육의 방향과 목적, 그 과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음악의 당위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6학년 음악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 교과서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 출판사의 교과서별 분석과 개선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구성 체제,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내용의 오류의 네 가지 범주로 분석해 보았다.

A는 대단원과 그 하위 영역으로 제재곡을 배치하고 각 활동별 영역의 분포가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부분은 화음이나 합창 활동의 어려움이 눈에 띄었고 평가에서 감상 부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과 수업 안에서 가락 만들거나 화음 쓰기의 짝막한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B는 대단원 4개와 소단원 5~6개, 그 하위 단계로 제재곡이 배치되고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음악 컴퓨터를 넣어 수업과는 무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가는 코너가 있었다. 영역별로 개념 요소 형성을 위한 활동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고 활동 요소도 많다. 평가 항목은 따로 나타나지 않고 수업 안에서 가락을 만든다든지 연주 후 동료평가 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C는 기존 교과서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제재곡 배열식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 활동 비율이 높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다양하지 않으나 연주 후 친구 평가와 가락 만들기가 다른 활동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하는 국정 교과서로서 초등학교 음악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2011년은 단일화 국정 교과서였던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교과서가 새롭게 검인정 교과서로 현장에 처음으로 적용된 해이다(류미해, 2010. p.20). 현장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 검정 교과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올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사는 다루기 쉽고 학생은 배우기 쉬운 교과서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3). **6학년 교사용지도서**. 금성출판사.
- 교육부 (2013). 2013 국정도서 현장적합성검토 연구학교 워크샵. 3.
- 교육부 (2013).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V**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서울.
- 김미숙 (2011). 음악교과서 발전 방향 연구. **음악교육연구**. 40.
- 김명숙 (2008). 한국과 독일 교과서 비교를 통한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학습 내용 구성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상은 (2010). 제1차 교육과정기 음악과 교과서 연구(1): 서지 사항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39.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08). **음악교육의 기초**. 경기도: 교육과학사.
- 노용 외 (2012). **예술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류미혜 (2010). 교육과정에 따른 2010 전시본 초등 5, 6학년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수록 가창 제재곡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8.
- 민경훈 (2008).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서 개선을 위한 현행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문제점 분석.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8, 149.
- 민경훈 외 11명(2009). 21세기 음악교육학 총론. 충북: 한국교원대학교출판부.
- 박경옥, 이나리, 정다운, 황수빈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 4학년 음악교과서 전시본 6종 분석 연구 : 감상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
- 변계원 (2009).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험본 초등 3, 4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 부분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7.
- 서울사대부설초 (2013). 초등 3~4학년군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및 수업 적용. 서울: 저자.
- 석문주 외 10명 (2012). **통합적 접근에 의한 음악과 교수 학습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홍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출판사. 221.
- 임미경, 현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예스더 (2010). **음악교수법**. 서울: 학지사.
- 장창환, 조효임, 이동남 (2006). **제3판 초등음악과 지도법**. 서울: 삼호뮤직.
- 조순이 (2004). 독일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Musikunterricht(음악 수업)의 내용체계 분석 연구. **음악교육연구**. 27. 228.
- 한윤이 (2012). 초등학교 음악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국악 교수법 고찰. **음악교육연구**. 41.

- Abeles, H. et al. (1984).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N.Y. : Shirmer Boos.
- Leonhard, C. and R. W. House (1992).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Reynolds, H. R. (2000). Repertoire is the Curriculum, *Music Educators Journal*, 87(1), 31-33.
- Silver Burdett (2005). *Making music: Glenview, IL: author.*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6th Grade Music Textbooks by the Revised Curriculum of 2007

Soh-Yeong Yang

Recently, school curriculum has been amended and announced several times; announcement of 2007 school curriculum (Dec. 31, 1997), announcement of 2007 revised school curriculum (Feb. 28, 2007), announcement of 2009 school curriculum autonomy (Sep. 2009) and amendment and announcement of 2009 revised school curriculum (Dec. 23, 2009).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iscuss the followings from diverse perspectives through analysis on the use of new textbooks in school

According to the analysis, Textbook A has a relatively large portion for 'singing,' and the evaluation part seems effective in class. In Textbook B, there were various attempts to change contents and method, focusing on activity-centered units. The units were arranged by activity with diverse teaching methods, and frequency by section is mostly balanced. Textbook C is similar to the previous textbook in terms of form with the arrangement of title songs. The singing section accounts for a great portion with little teaching and learning parts.

The suggestion method is also simpler than other textbooks. From a music teacher'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keep working hard to develop textbooks which are easy to teach for teachers and easy to learn for students through analysis on various school textbooks.

Key words: revised curriculum of 2007, music textbook, elementary school

투고일: 2014년 5월 31일, 심사(수정): 7월 27일(8월 1일), 게재확정일: 8월 21일